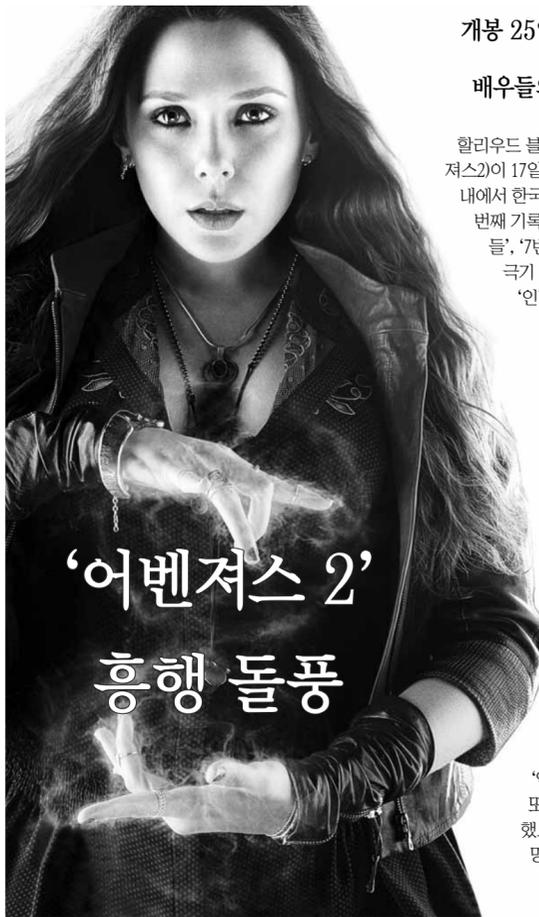


TV 1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토크쇼 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이브의 사랑>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쟁 골든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황홀한 이웃>
9 00 신문이야기 풀죽구 쇼+	30 KBS 뉴스	00 TV소셜 <그리도 푸르른 날에>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 인사이트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별별가족	40 이욱정PD 요리인류 키친 50 지구촌 뉴스		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11 30 채널A뉴스특보	00 KBS 네트워크 특선 뮤직토쇼 가요 1번지 바른말 고운말	10 다큐멘터리 3일(재)	00 찾아라 맛있는 TV 스페셜	10 KBC 생활뉴스 30 한국의맛
12	00 KBS 뉴스 12	10 위기탈출 남버원(재)	00 MBC 정오뉴스 20 TV속의 TV	00 SBS 12 뉴스 45 닥터 365 55 화첩기행(재)
1 50 뉴스특급	00 대조영(재) 55 시청자질문 우리사는 세상	10 특선다큐 <슈퍼히어로 불멸의 신화>	20 아하 동물탐험대(재)	55 날씨와 생활
2	00 궁금한 일요일 장영실 쇼(재)	00 KBS 뉴스타임 10 인간극장 스페셜(재) 50 영화가 좋다(재)	05 내꺼야 풀록 30 동물가족 체험기 40 통일 전망대	00 네트워크현장 고향이 보인다
3 00 직인직설	00 KBS 다큐 1 한국경제의 골든타임 제2편 트트생활채널	45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00 MBC 뉴스 10 바다의 금동이 40 통일 전망대	00 SBS 뉴스 10 잘먹고 잘사는 법 식사하셨어요(재)
4 20 쾌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40 TV 유치원 콩다콩	25 MBC 일일특별기획 <딱 너 같은 딸>(재)	00 꿈의 라이브 프리즘 스톤 30 내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5 3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구그래피	10 타닝 매카드 40 동물의 세계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 뉴스 3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질문 우리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24 30 2TV 저녁생활 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날씨와 생활 05 닥터365 10 KBC 생방송 투데이
7 1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뉴스 7 30 시사현장 맥 55 집중인터뷰 이사람	50 일일 드라마 <오늘부터 사랑해>	15 일일연속극 <불굴의 차여사>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타치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달려라 정미>
8 20 갈데까지 가보자	25 일일연속극 <가족을 지켜라>	30 반려동물 극장<단팍> 55 1대100	55 MBC 일일특별기획 <딱 너 같은 딸>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남도의 보물 100선
9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논	20 세상발견 유레카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시사기획 창 <준엄한 요양 제2편> 55 국민대합창 우리가	00 월화드라마 <후아유-학교 2015>	00 월화특별기획 <화정>	00 월화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
11 00 모큐드라마 <싸인>	00 KBS 뉴스라인 40 창의인재 프로젝트 생각의 집	10 우리동네 예체능	15 PD수첩	15 썸남썸녀
12 10 나는 몸신이다(재)	30 독립영화관 <마이 라미타>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55 이욱정 PD 요리인류 키친	10 MBC 뉴스24 20 MBC 100분 토론	35 나이트 라인



개봉 25일 만에 1000만...역대외화 최단기간

배우들의 잇단 망언에도 불구하고 인기몰이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어벤져스-에이지 오브 울트론'(이하 어벤져스2)이 17일 개봉 25일 만에 관객 1000만명 고지를 넘어섰다. 국내에서 한국영화와 외화를 통틀어 관객 1천만명 돌파는 역대 15번째 기록이다. 앞서 '명량', '국제시장', '아바타', '괴물', '도둑들', '7번 방의 선물' '광해 : 왕이 된 남자', '왕의 남자', '태극기 휘날리며', '해운대', '변호인', '실미도', '겨울왕국', '인터스텔라'가 같은 기록을 썼던 바 있다.

어벤져스2는 올해 개봉작 가운데 처음으로 관객 1000만명을 돌파한 영화다. 역대 외화로는 '아바타', '겨울왕국', '인터스텔라'에 이어 네 번째이며, 마블 스튜디오가 제작한 영화로는 처음이다. 또 어벤져스2는 종전 외화 가운데 최단기간 관객 1000만명 도달 기록을 보유한 아바타(39일)의 기록을 14일이나 앞당겼다.

한국영화와 비교해도 '명량'(12일)을 제외하고 '국제시장'(27일), '7번 방의 선물'(32일), '광해 : 왕이 된 남자'(38일)보다 빠른 속도다. 어벤져스2는 역대 영화 첫 사전 예매량 100만장 돌파를 시작으로 역대 외화 박스오피스 평일 최고 오프닝 기록(관객 62만명)을 세우는 등 폭발적인 흥행을 예고했다.

이런 분위기는 개봉 2일째 100만명, 3일째 200만명, 4일째 300만명, 7일째 400만명, 9일째 500만명, 10일째 600만명, 11일째 700만명, 13일째 800만명, 17일째 900만명 돌파로 이어지면서 매번 '역대 외화 최단기간'이라는 수식어를 놓치지 않았다. 또 역대 근조자의 날 최매 관객수(77만2666명)를 기록했으며, 역대 외화 가운데 최대 주말 관객수(281만8886명) 타이틀도 거머쥐었다.

흥행 수익은 제작비 2억5000만달러(약 2717억원)를 이미 회수하며 세계적으로 10억달러(약 1조860억원)를 넘어섰다.

어벤져스2는 서울에서 여러 액션장면을 촬영했고, 한국 배우 수현을 캐스팅하는 등 '작실한 듯' 한국 시장을 공략한 영화다. 블록버스터라는 장르적 속성에 이런 불거리와 궁극적이 더해지면서 어벤져스2의 국내 흥행몰이는 이미 예고된 절차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이 등장하는 분량이 7분여의 전투 장면을 포함해 20분 안팎에 그쳤다는 점도 논란거리였다. 이 영화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외국 영상물 국내 로케이션' 사업에 선정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조성된 지원금으로 제작진이 국내에서 쓰는 제작비의 20~3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영화의 국내 제작비는 100억원 정도로, 약 30억원을 되돌려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벤져스2 제작진의 작년 국내 촬영 때 시민이 겪은 불편까지 고려하면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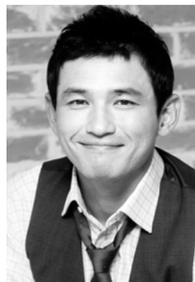
영화는 초반 국내 전체 스크린 약 2300개 가운데 1800개가 넘는 상영관을 장악하며 독과점 논란도 일으켰다. 개봉 4주차까지 1000개 이상의 스크린을 유지하면서 시장질서를 파괴하고 관객의 선택권을 빼앗아갔다는 비판과 불만이 목소리가 여기저기 터져 나왔다.

출연 배우들은 잇단 망언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 캡틴 아메리카 역의 크리스 에벤스와 호크 아이를 연기한 제레미 레너는 한 TV 인터뷰에서 블랙 위도우를 '난잡한 여자(slut)', '매춘부(whore)'라고 지칭해 물의를 빚었다. 아이언맨 역을 맡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영국에서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터뷰 자리를 박차고 나가 전 세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영화란 관객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

배우 황정민 대학생들에게 '연기론' 강연

영화 '국제시장'을 통해 국민 배우로 거듭난 배우 황정민이 영화인을 꿈꾸는 대학생들에게 자신만의 연기 철학을 전했다. 18일 CJ CGV에 따르면 황정민은 지난 15일 CGV 신촌 아트레온에서 '황정민의 연기론'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자리에서 "배우란 관객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정민은 "영화란 만드는 사람들과의 맞장구치며 좋아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결국엔 최종적으로 이를 보는 관객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황정민은 "배우로 책임감을 느끼고, 자기가 맡은 배역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며 좋은 작품을 위해 스스로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는 절제함이 있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연극배우로도 활동한 경험이 있는 그는 일찍부터 예술에 대해 고민을 했다고 한다.



그는 "연극이나 뮤지컬이 '배우의 예술'이라면 영화는 '감독의 예술'이라고 생각한다"며 "감독이 작품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히 캐리커에 대한 고민과 몰입해 연기를 통해 시너지를 내는 것이 배우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황정민은 배우를 꿈꾸는 이들에게 늦은 나이에 연기를 시작했다면 본인의 실속한 경험담을 들려 주기도 했다.

"언제 시작했는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엔 내가 그 일을 했을 때 행복한가의 문제이고, 그렇다면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죠."(끝)

드라마 프로듀사, OST 강자들 라인업

이승철·백지영 등 참여 음원차트 상승세

이승철, 백지영 등 'OST 강자'들이 KBS 2TV 드라마 '프로듀사'의 OST(오리지널사운드트랙) 작업에 대거 참여했다. 앨범유용사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코리아는 오는 23일 공개될 '프로듀사' OST 앨범에 이승철과 백지영을 비롯해 김범수, 김연우, 알리 등 드라마 OST로 정평이 난 최정승 보컬리스트들이 합류했다고 18일 밝혔다. '프로듀사'는 SBS TV '별에서 온 그대'의 히어로 김수현을 비롯해 배우 차태현과 공효진, 가수 아이유가 출연해 화제가 된 드라마다. '별에서 온 그대'의 박지은 작가를 비롯해 '개그콘서트'로 이름을 알린 서수민 KBS CP, '풀하우스', '그들이 사는 세상'을 만든 표민수 PD가 공동 연출에 참여해 관심이 한껏 높아졌다.

드라마 출연진과 제작진 못지않게 OST 참여 가수들도 '초호화 라인업'으로 구성됐다. 'OST 킹'으로 불리는 이승철의 '달링'은 15~16일 1·2화가 방송된 뒤 음원차트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역주행을 시작했다. 김연우가 부른 '투 비 위드 유'(To Be With You)도 2화 방송과 함께 음원차트에서 공개된 뒤 일부 실시간차트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총 15트랙으로 구성된 앨범에는 이 밖에도 벤, 째, 루시드 폴, 헤이니, 기현, 하열 등이 가창자로 참여해 주류와 인디 뮤지션들이 고루 참여했다. 소니뮤직은 22일 밤 10시 마지막 선공개곡을 선보인 뒤 23일 밤 10시 OST 앨범을 출시할 예정이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26일부터 만날 수 있다. /연합뉴스

EBS 1

05:00 EBSe 생활영어	09:40 토크쇼 부모 <놀라운 데이터>	14:45 미앤미로봇	19:00 지파이터스
05:40 성공 인생후반전	10:40 최고의 요리비결	15:00 반짝반짝 발명 클럽	19:30 EBS뉴스
06:10 EBS 인문학 특강(재)	11:1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15 내 친구 아서	19:50 극한직업
07:00 우당탕탕 아이쿠(재)	11:20 세계대미기행	15:30 사계마을 타기톡!	20:40 다큐 오늘
07:15 곤(재)	12:00 EBS 정오 뉴스	15:45 미술 탐험대	20:50 세계대미기행 <히말라야 전설의 왕국, 부탄>
07:30 출동! 슈퍼맨(재)	12:10 EBS 스페이스 공감2	16:00 당동명 유치원(재)	21:30 한국기행 <내 마을의 울릉도>
07:45 뽀롱뽀롱 뽀로로(재)	13:05 지식채널e	16:20 캐니멀	21:50 EBS 다큐프라임 <위대한 미안마>
08:00 당동명 유치원	13:10 글로벌 가족 정착기 <한국에 신다>	16:30 놀이터 구조대, 보잉	22:45 리얼극장
08:20 두다다(재)	13:40 즐거운 수학 EBS MATH	16:45 킨디와 친구들(재)	23:35 세계 견문록 아틀라스 <알프스산맥>
08:35 WHO-위인극장	13:50 꼬마 철학자 휴고	17:00 WHO-위인극장(재)	24:05 지식채널e(재)
08:50 꿈디와 친구들	14:00 몬스터 수학나라	17:1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24:10 EBS 인문학 특강
09:0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재)	14:15 피터 래빗	17:30 뽀롱뽀롱 뽀로로	
09:20 놀이터 구조대, 보잉(재)	14:30 허풍선이 과학쇼	17:45 꼬마버스 타요	
09:35 이밤! 스페이스 정글		18:00 생방송 토티! 보나하니	

EBS플러스1

00:00 올림포스 <국어 I-일짜개념>	12:10 올림포스 <국어 I-일짜개념>
00:50 <고교 Basic Grammar-junior> <문학-일짜개념>	13:05 <고교 Basic Grammar-junior> <국어>
01:40 <문학-일짜개념>	14:00 2016 수능특강 <국어>
02:30 <미적분 II>	14:50 올림포스 <문학-일짜개념>
03:20 <수학 I>	15:40 <미적분 II>
04:10 올림포스 평가문제집 <미적분 II>	16:30 <수학 I>
05:00 뉴탐스런 <물리 I>	17:20 올림포스 평가문제집 <미적분 II>
06:00 <생명과학 I>	18:10 뉴탐스런 <물리 I>
06:40 <동아시아사>	19:20 <생명과학 I>
07:30 <윤리와 사상>	20:00 EBS 스타강사 특강
08:20 2016 수능개념 <윤해정의 국어>	20:50 2016 인터넷 수능
09:10 <심주석의 수학 I>	<화법과 작문 & 뜻서와 문법 A형>
10:10 2016 수능특강 <영어>	21:50 <문학A형>
11:00 <수학 I>	22:30 최태성의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문화

EBS플러스2

07:00 2015년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15:50 <수학4-1>
07:30 전산세무회계 시험대비 강좌	16:20 <수학5-1>
08:00 전산세무회계 시험대비 강좌	16:50 <수학6-1>
08:30 약학·의학·치학 입문자격시험	17:20 초등과학 개념잡기
09:00 출가운 수학 EBS MATH	18:00 TV 중학 <국어⑤⑥>
09:10 TV 중학 <국어①②>	18:40 <수학3(상)>
09:50 <수학1(상)>	19:20 필독 중학 세계사
10:30 <역사2>	20:00 EBS 기획특강
11:10 <국어③④>	20:50 EBS 기획시리즈
11:50 <수학2(상)>	21:40 EBS UCC 공모 나쁘디
12:30 실전 취업가이드	22:00 등업신공 <과학2(하)>
13:10 등업신공 <수학1(하)>	22:40 <수학3(하)>
13:50 <과학1(하)>	23:20 필독 <사회1>
14:30 <수학2(하)>	24:00 왕기초 중학 <수학2>
15:20 만점왕 <수학3-1>	24:30 백점공략 <과학(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19일(음 4월 2일 乙未)

48년생 지혜가 앞서야 할 판세이다. 60년생 털어 놓고 상의 해본다면 해결점을 도출할 수 있다. 72년생 생기는는 하나 만족 시킬 정도까지는 되지 못 한다. 84년생 맛대응 하려 하지 말고 예봉을 피하는 것이 적절하다. 행운의 숫자 : 16, 23	42년생 오류가 있다면 즉시 수정하라. 54년생 상대가 심경의 변화를 보일 수도 있었다. 66년생 소원 했던 관계가 복원되거나 미진함이 회복돼 돌아 선다. 78년생 소신과 주관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행운의 숫자 : 42, 57
49년생 이왕 출발 했으면 앞만 보고 나아가자. 61년생 여기서 틀어지면 막판에 이를 수도 있다. 73년생 유동적이니 만큼 변수의 폭까지 감안해야겠다. 85년생 고민하지 말고 정해진 절차에 따르는 것이 백 번 낫다. 행운의 숫자 : 36, 71	43년생 상대의 비위를 맞추느라고 진땀을 빼었다. 55년생 결과와 모든 과정을 정당화 시킬 것이다. 67년생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지 않는다면 어려울 것이다. 79년생 완전히 합당한 것만을 찾기는 힘들 것 같다. 행운의 숫자 : 85, 01
38년생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50년생 때가 아니면 물러나서 기다려야겠다. 62년생 급류에 휩쓸리기 전에 빨리 상륙하자. 74년생 꼭 만나야 해결되는 것만은 아니다. 86년생 가닥이 잡히는 시점이다. 행운의 숫자 : 32, 76	44년생 단순화 시켜야 효율성을 제고하여 완전히 집중 할 수 있느니라. 56년생 사소한 것이라도 가볍게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68년생 우연히 마주칠 수다. 80년생 행편을 고려해 보는 것이 용이하다. 행운의 숫자 : 58, 22
39년생 받아들이는 것이 낫겠다. 51년생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차차 쉬워질 것이다. 63년생 지리멸렬함을 지나 성취의 장에 이른다. 75년생 향후의 달성보다 현재의 위치에 신경 쓸 때다. 87년생 지각 변동을 재촉하라. 행운의 숫자 : 49, 08	45년생 절제 속에서만만이 건설한 진보가 있을 것이다. 57년생 현재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일차적인 문제다. 69년생 빛 좋은 개살구에 현혹되면 곤란해진다. 81년생 맥이 풀려서 허탈해하는 형상이다. 행운의 숫자 : 88, 94
40년생 있을 때 잘 하자. 52년생 조심만 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 64년생 여러 가지 변수와 유혹 앞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을 것이니 후회하지 않게 행동해야 한다. 76년생 소중함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96, 50	46년생 변화에 대처하는 새로운 감각과 실행이 요구 된다. 58년생 일차하지 않을 수도 있느니라. 70년생 준수하지 않는다면 위험에 노출 될 것이다. 82년생 직접적으로 관련 되지 않는다면 차치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68, 15
41년생 불정적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을 헛거렸다. 53년생 전환점을 맞이할 큰 획을 긋는 갈림길에서 있다. 65년생 의도는 좋으나 때와 장소를 가려야만 한다. 77년생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상대는 다 알고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63, 93	47년생 방심하면 놓칠 수도 있다. 59년생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 백 번 낫을 것이다. 71년생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 보리라. 83년생 피하려 했다가 오히려 더 부담을 안을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75, 31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